

## 상상된 공감, 소통의 시학

— 『나마스테』에 나타난 법과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

엄미옥\*

1. 다문화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법
2. 근대 국민국가와 인권의 역설
3. 순혈주의와 성별화된 국적법
4. 상상된 공감과 소통의 시학
5. 결론

### 국문요약

『나마스테』는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 그리고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인 여성과의 혼인 및 국적법에 관한 법의 문제를 사실주의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본고는 『나마스테』에 재현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법의 서사와 문학적 서사와의 충돌 양상을 밝히고, 문학적 상상력이 법을 넘어서 제기하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시작된 불법체류 단속과 강제 추방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과 인권유린의 상황은 국민국가 속에서 인권이란 특정국가의 시민에게만 귀속된 권리임을 보여준다. 한편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의 결혼에 배타적인, 순혈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제의 젠더화된 국적법 또한 국민국가의 경계 곳곳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별거벗은 생명으로만 존재하는 이주노동자는 인간과 시민, 출생과 국적간의 연속성을 되묻는 장소로서 법질서를 세우는 근대주권의 허구성을 폭로한다.

『나마스테』는 이러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우에 대한 동일시 효과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상상된 공감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불의에 대한 반감과 연대의 감정을 촉발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공감의 형성을 위해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카밀의 발화를 통해 네팔과 티베트의 신화, 종교에 관련된 용어를 포함한 다양한 네팔어를 들려줌으로써 언어자원의 위계를 무화시

---

\* 서강대학교 강사.

키고 대화의 장에 타자를 끌어들인다. 이러한 소통의 언어를 서술하는 『나마스떼』의 문학적 상상력은 혈연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법질서 속으로 들어가 법체계를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법의 서사, 문학적 상상력, 이주노동자, 인권, 시민권, 국민국가, 근대주권, 호모사케르, 공감, 소통)

## 1. 다문화사회와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법

이 글은 박범신의 『나마스떼』를 대상으로 작품에 나타난 법과 인권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나마스떼』는 작가 박범신이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의 자살을 계기로 이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했다<sup>1)</sup>는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3년 7월 국회가 이주 노동자에 대해 고용허가제(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를 채택한 시기에 발표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제보다 진전된 부분이 있었지만 산업 연수제가 완전히 폐지된 것도 아니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아 이주 노동자의 기본 인권 및 노동권 보장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04년 11월 이후,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시작된 4년 이상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단속으로 강제 추방의 불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이 속출되었다. 『나마스떼』는 이러한 과정을 생생히 기록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제도 및 법 적용의 모순과 비합리성은 물론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혼인법 및 국적법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동안 『나마스떼』에 대한 연구는 여러 관점에서 수행되었다. 먼저 이주 노동자를 연민과 동정의 대상으로 그림으로써 타자담론의 위험성을 노출시켰다는 등 이주노동자의 재현양상을 밝히는 연구가 있다. 그런가 하면 『나

- 
- 1) 박범신, 「작가후기-아 그리운 카일라스」, 『나마스떼』, 한겨레 출판, 2005, 395쪽. 『나마스떼』는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겨레신문에 연재되었다. 연재 기간은 1년간 계속된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기간과도 겹친다. 이 글에서는 2005년에 출판된 단행본을 텍스트로 삼되, 인용은 쪽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 2) 오운호, 「디아스포라 플롯 - 2000년대 소설에 형상화된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이

마스테』에 나타난 신화적 상상력의 맹점을 비판하는 내용도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카르마를 수용하고 자신의 것으로 하는 데서 고통이 씻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생산적인 사유라 하기 어렵다. 삶의 구체적 맥락 속에서 생의 의미로 전환되어야 삶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능력이 된다”<sup>3)</sup>는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한편 다문화가족 소설의 관점에서 『나마스테』를 연구한 논의들은 이 작품이 한국의 순혈주의 이데올로기와 글로벌 자본주의 폭력성을 고발한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투적인 누이 혹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육친성과 네팔의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 형이상학적 이데아를 구축하고 있다<sup>4)</sup>고 한계를 지적했다. 또한 박정애는 빈국 출신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와 결혼함으로써 순식간에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 된 여성주체가 가부장제 민족/국가의 고정화를 거부하는 전복적 주체로 거듭나지만, 초월적 아버지과 대속자 아들, 그 아들의 영원한 누이/어머니를 통해 성스러운 카르마라는 주체의식이 외국인 남성의 타자화와 자국여성의 신화화에 기여한다<sup>5)</sup>며 다문화 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에 주목한다.

비교적 최근에 발표된, 이주 노동자를 호모사케르로 정의하고 이를 양산해 내는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전지구적 자본의 지배제국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6)</sup>을 강조한 연구는 이 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작품에 형상화된 이주 노동자를 통해 국민국가와 주권권력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고는 이러한 기

주자, 『시학과 언어학』17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9.

- 3) 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 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21쪽.
- 4) 정혜경,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 『현대소설연구』 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7쪽.
- 5) 박정애,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여성문학연구』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22쪽.
- 6) 박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4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오윤호 또한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현대문학이론연구』4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에서 이러한 시각을 전제로 법의 문제에 대해 언급한다.

존 논의를 토대로 하되, 이주노동자로 표상되는 이주민의 법과 인권 문제에 주목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확장되면서 자본의 전 지구적 이동은 근대 이래의 국경과 문화를 탈구축하고 새로운 국경과 문화 개념을 재구축)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 지구적 이동이 가져온 초국가적 맥락 속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의 유입을 통해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이후 발표된 소설에서도 확인된다. 이해경의 「물 한모금」(『문학과 사회』, 2003 봄호), 김재영의 「코끼리」(『창작과 비평』, 2004 가을호), 이훈개의 푸른 쏘나」(『내일을 여는 작가』, 2005 겨울호), 손홍규의 「이무기 사냥꾼」(『문학동네』 2005 여름호), 공선옥의 「명랑한 밤길」(『창작과 비평』 2005 가을호) 등에서 이주노동자와 결혼 이주여성이 다문화 사회를 반영하는 소설적 상상력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들 또한 한결같이 이주노동자의 표상을 통해 국민국가에 기초한 인권이라는 개념을 되묻고 있다. 즉 이방인이자 외국인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의 존재는 국민국가가 국민과 비국민, 시민과 비시민의 범주를 통해 법권리를 범주화하고 인권과 시민권 등을 통해 인간을 서열화하는 문제를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주 노동자는 인간의 타고난 권리로서의 인권의 보편성과 국민국가의 구성원에게만 주어지는 시민권 개념의 특수성 사이의 충돌을 보여주는 지점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사회에서 더욱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과 국가장치로써의 법의 문제에 천착하여 문학적 상상력이 이러한 법적, 정치적 현실에 어떠한 변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탐색하고자 한다.

기실 문학과 법은 각기 다른 시선의 잣대를 가지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이다. 문학에서는 인간의 삶과 현실을 관류하는 법의 존재가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독자성을 침해함으로써 정의 자체가 문제화되는 국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sup>8)</sup> 이는 문학을 통해 법이라

7)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2006 겨울호, 431쪽.

8) 법이 지향하는 정의는 그 성격상 민주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는 권위의 실체를 들여다 볼 때 법의 다층적 모습 즉 법의 인위성과 강제성, 법질서의 합리적 외관 뒤에 감추어진 비합리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법과 문학의 관련성을 주장하고 있는 제롬 브루너에 의하면 문학적 내러티브의 도전은 겉으로 보이는 실제 세계의 현실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그는 문학에 의해 산출된 내러티브는 과거의 법적 결정이라고 하는 법체계 속으로 나아가서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법 이야기를 하는 방법과 그것을 판사들이 법적 범주로 번역하는 방법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나아가 세계에 대한 문학적 표현의 변화가 법체계 속으로 들어갈 때 법 자체의 체계를 발전시키는 위대한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sup>9)</sup>고 말한다.

18세기에 쓰여진 리처드슨의 『파멜라』(1740)와 『클라리사』(1780) 그리고 루소의 『신엘로이즈』(1761)가 독자로 하여금 평등과 공감의 감각을 형성하게 했고, 독자의 타인과 동일시하려는 공감으로 인해 인권의 탄생을 가능했다<sup>10)</sup>는 지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나아가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

사회 안정을 확립하는 실천적 과제를 갖고 있지만, 문학에서의 정의는 대개의 경우 개인의 가치와 대립되는 사회적 혹은 집단적 힘을 제시하여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존립이 상징적 갈등과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최경도, 「법과 문학: 정의의 문제」, 『새한영어영문학』 제48권 1호, 2006, 88쪽.

- 9) Jerome Seymour Bruner 지음, 강현석·김경수 옮김, 『법/문학/인간의 삶을 말하다-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2010, 85쪽. 제롬 브루너는 구체적으로 할렘 르네상스의 내러티브적 목소리나 해리엇 비처 스투우의 『톨 아저씨의 윈두막』의 현실이 미국의 법률체계에 스며들어 인종차별을 폐지하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고 한다. Jerome Seymour Bruner 지음, 강현석·김경수 옮김, 앞의 책, 93쪽. 문학의 특질이 되는 서사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법의 현실에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것이 법과 문학의 연계를 주도했던 이론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서사를 통해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면 법은 문학으로부터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법의 내용을 인간화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최경도, 「헤라클레스의 활: 법과 문학의 서사전략」, 『새한영어영문학』 제51권 3호, 2009, 184쪽.
- 10) 서한체 형식으로 된 이 소설들에서 등장인물은 서신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표현하고 자율적 개체로 변모한다. 세 소설에 나오는 여성인물의 거의 모든 행동은 부모나 사회가 부과하는 제한들에 맞서는 여성이지의 표현이었다. 이 여성들과 동일시하는 독자는 모든 사람, 심지어 여성도 독립을 추구한다는

시대』와 같은 교양소설이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Human Rights)의 인간성의 발전에 대한 플롯을 예고했다<sup>11)</sup>는 논의는 법과 문학의 상호작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는 문학이 법제도와 법 적용의 현실에 스며들어 실제로 새로운 사회적 맥락을 창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언한다.

『나마스테』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사실주의적 서술에 기초한 법의 서사와 허구적인 문학적 서사와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그 충돌은 다문화 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되고 있는 국민국가와 주권권력의 문제 및 그로부터 제기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 문제를 포함한다. 본고는 『나마스테』에 재현된 법의 문제를 살피고 문학적 상상력이 법을 넘어서 제기하는 가능성은 어떠한 것인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연구는 종래 문학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법의 영역을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문학과 법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 2. 근대 국민국가와 인권의 역설

『나마스테』는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과 사회에서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들은 고향에서 브로커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코리안 드림을 좇아 소위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

것을 깨닫게 된다. 더구나 이 서한소설의 전성 시기는 인권의 탄생시기(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 1789년 ‘프랑스 혁명’)와 일치했다. 18세기에 독자들은 이 소설을 통해 타인들을 자신처럼 동일한 내면적 감성을 지닌 존재로 보게 되면서 공감대를 확장하는 법을 배웠다. 인권은 대중들이 독서를 통해 타인을 이렇게 근본적으로 동등하게 생각하도록 배움으로써 자랄 수 있었다. 즉 새로운 독서는 새로운 개인적 경험(공감)을 창출했고 그것은 다시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관념(인권)을 낳았던 것이다. 린 헛트 지음, 전진성 옮김,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43-82쪽 참조

- 11) 근대의 인권법은 교양소설의 양식 안에 있는 인간성의 발전에 대한 규범적인 이야기를 플롯화 한다. Slaughter, Joseph R, *Human Rights, Inc; the world novel, narrative form and international law*,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7. p.93.

1993년 실시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산업연수 기술생 도입업종과 규모를 확대하며, 외국 인력 유입을 제도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이미 제도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 이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었고, 노동법 적용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등의 사회복지 제도에서 배제되었다.<sup>12)</sup> 또한 연수생에게는 작업장을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고용주의 억압과 횡포가 심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연수생들에게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했고 인종차별, 임금체불, 여권 압류, 강제노동, 감금, 구타와 욕설 등으로 인권유린이 빈번했다. 때문에 고용주의 폭력을 참지 못하고 이동의 자유와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 작업장을 이탈해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사례가 이어졌다.<sup>13)</sup> 미등록 노동자가 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여권과 체류비자도 없고, 송출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 더욱이 그들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은 자신만을 의지하며 고국에 있는 가족들이다. 작가는 카밀의 발화를 통해 산업연수제의 불합리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한국에 가려면 최소 1500불, 많으면 3000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5000불 넘게 들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만 해도 외국인 노동자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이리저리 해서 최소한 이백 몇십만 원의 수입을 챙긴다고 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모아 보내는 회사, 네 송출회사, 회사에서 돈 벌고, 알게 모르게 대사관에서 돈 벌고, 브로커들도 돈 벌어야 해요 돈 많은 사람일수록 크게 벌어야 되지요 돈, 돈, 돈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굶주린 짐승들이 먹이감을 발견하고 일제히 달려들어 힘센 놈, 힘 없는 놈 할 것 없이 너는 다리고기 먹고, 너는 엉덩이 고기 먹고, 너는 갈비 먹고, 또 너는 뼈해장국 먹고, 이런 식인 거지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산업 연수생제도가 관광비자로 온 불법체류자나 알고 보면 다 같아요 다 뜯어먹고 착취해요 제도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정부도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코리아 드림을 쫓아오지요 (81쪽)

12) 이선옥,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 변화 -고용허가제 도입 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2005, 41쪽.

13) 김해진, 「인권과 탈근대적 시민권 담론 -국내 이주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8. 36-38쪽.

인용한 부분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빚을 얻어서까지 송출회사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그들의 코리안 드림은 곧 산업연수생 지침과 법이 있어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과 노동자로서 아무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의해 산산히 무너지고 만다.

물론, 법 있어요

연수생들, 법대로만 해주면 월급 작아도 다 열심히 일할 거예요 강제적립금도 법대로라면 안돼요 기숙사 문 잠그는 거, 법대로라면 안돼요 한국 와서 새 계약서 강제로 만드는 일 안돼요 아프면 병원 치료비, 사장이 대줘야 법대로 되는 거예요 여권 빼앗아 두는 것도 법대로라면 안되고 강제로 쫓아내는 것, 안돼요, 사장님 자기 마음대로 쫓아내거나 벌주지 못하게 한국의 법, 왜 있어요 연수생 보호지침, 근로기준법, 우리도 알아요, 법, 훌륭해요 그러나 법대로 하는 사장님, 부장님, 관리업체 직원 없어요 노동부도 다 알고 있다고 우린 생각해요 법대로 해달라고 우리가 말하면 우린 카트만두로 돌아가야 돼요 호소할 데 별로 없어요.(91-92쪽)

외국인 노동자들 연수생으로 들어와도 회사 부도나면 무조건 자기나라로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다른 데로 취업할 수 없고 시켜주지도 않아요 관리업체도 관리비만 받아먹고 끝이에요 다들 몇천불씩 빚 얻어왔는데 그냥 자기 나라 돌아가 봐요 아버지, 어머니, 삼촌 고모, 이모 다 죽게돼요 빚 때문에 살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해주는 사람, 그런 거 생각해주는 법, 한국에 없어요 노동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동안 못받은 월급, 어떻게 받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그 정도예요 그렇지만 사비나, 외국인 노동자 입장 더 무서운 건 돌아가라, 니네 나라 돌아가라, 그거예요.(92-93쪽)

인용문은 산업연수생을 보호하는 법<sup>14)</sup>이 있어도 법적용이 제대로 이루어

14) 1995년 2월 14일 노동부는 ‘노동부 예규 258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외국인 연수생에게 산업재해 보상보험, 의료보험의 적용과 근로 기준법상의 강제 근로의 금지, 임금지불, 금품청산, 노동시간의 준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사업장에서 유명무실했다. 예를 들어 당시 근로기준법 제 29조에 의하면 강제 저축이 금지되고 있었지만 대부분의 산업연수생 사용업체에서는 그들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따로 떼어 강제로 저축하도록 하였다. 김혜진, 앞의 논문 39쪽. 이는 중소기업청 고시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 23조 자발적 의사에 의한 장기적금 가입조항에 의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었고, 실



지지 않는 산업체의 현실과 또 구체적인 법적 장치의 부재로 연수받는 회사가 망하면 그들이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주노동자들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거나 산업재해로 장애자가 되거나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제 나라로 돌아가야만 한다. 사비나는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불법체류자가 된 신세이다. 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나왕처럼 무릎을 다쳐 다리를 절어도, 구름처럼 프레스기에 손가락이 두 개나 잘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덴징과 같이 한국에 와서 처음 배운 말이 “암미”일정도로 욕설에 시달리며, “색깔대로 점수 매기는” 인종차별을 겪으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

카밀은 사비나에 대한 사랑으로 그녀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지갑을 통째로 날치기 당하는 바람에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만다. 그는 지갑을 잃어버린 후 친구 나왕이 있는 여주의 농장에서 일하다가 시흥 부근의 박스 공장으로 직장을 옮긴다. 그러나 박스 공장 상무한테 두들겨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도리어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를 당하고, 감옥에 갈까봐 두려워 도망친다. 그 후 의정부 변두리 노트 공장을 전전하다가 청바지 만드는 공장에서 샌드기로 다른 직원을 위협하다가 죽어라고 도망쳐 나온 상태다. 소형 전기 난로 하나 때문에 한국직원과 심각한 대거리가 벌어진 게 문제였다. “우리는 직원, 너희는 노동자, 우리는 주인, 너희는 노비”, “춥고 배고프고 천대받도록 애당초 설계된 종족들에게 난로가 뭐 필요하냐”라고 소리 지르는 한국 직원들이 끝내 경찰까지 부르자 카밀은 경찰을 피해 옥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무릎 뼈가 부서졌다. 이렇게 부당한 횡포에 시달려 상처를 입어도 불법 미등록 노동자이기 때문에 강제추방을 당할까봐 목소리를 낼 수가 없다.

한편 사비나와 같은 여성 이주자의 경우는 입국과 체류 형태에서 여러 가지 중첩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여성 이주자는 결혼이나 유흥업소에서의 서비스업 종사 등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이주가 주를 이루어 성별화된 이주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남성들이 이른바 3D업종에 대체노동력으로 투입

---

질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설동훈, 「차별과 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극복방안」, 『창작과 비평』 2001년 여름호(통권 112호), 366쪽.

되는 방식으로 입국하는 반면 여성들은 많은 경우 국제결혼의 형식과 성품의 상품화가 이루어지는 성 산업에 유입되는 형식의 이분화 되고 성별화된 이주 방식을 띠는 것이다.<sup>15)</sup>

공선옥의 『유랑가족』에서 조선족 명화는 오빠의 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농촌 총각 기석과 결혼해 한국에 왔지만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집을 뛰쳐나와 불법 체류자가 된다. 이후 식당일을 하면서 알게 된 배 사장에 의해 가리봉동의 노래방 도우미를 전전하다가 끝내 용자에 의해 살해 당한다. 김재영의 「아홉 개의 푸른 쏘나」에서 러시아 민속무용단원이었던 쏘나는 전통적인 러시아식 무용을 공연하는 곳에서 일하기로 하고 한국에 오지만 브로커에게 속아 클럽에서 일하는 스트립 댄서가 되고 만다. 그녀는 자신을 팔아넘긴 브로커 최의 구타와 폭행에 못 이겨 그를 칼로 찌르고 도망치지만 곧 잡히게 된다.

사비나 역시 처음에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하자 구로동 단란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이 카밀에 의해 발각된다. 그녀는 8형제 중 맏이로 월급을 받아도 고향에 보내느라 정신이 없다. 카트만두에서 그녀에게 한국은 “은혜로운 나라, 꿈이 다 이루어지는 상그리라 같은 나라”였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그녀가 처음 당한 일은 강간이었다. 첫 직장에서 경리과장이 환영한다고 술을 먹이고 가불해준다고 얼르고, 저항하면 카트만두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던 것이다. 결국 연수받기로 한 회사가 망해서 불법체류자가 된 그녀가 선택한 일은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한 노래방 도우미다. 이처럼 여성 이주노동자의 섹슈얼리티와 인권은 항상 불안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쏘나와 사비나의 경우는 이주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이주한 지역의 남성들에게 식민화 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합법 체류자이든 불법체류자이든 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돈 앞에 “인간적인 예우”였다.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마저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인종차별과 멸시 속에 차별적인 법 적용을 감수해야만 했다. 국민 국가가 자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안한 이주 노동자 제도에서 이주 노동

15)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200쪽.

자는 인간과 국민이 아니라 관리와 처분, 통제의 대상인 ‘노동력’으로만 존재했던 것이다.<sup>16)</sup> 이는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비리로 얼룩졌던 산업연수제가 폐지되고 대안으로 실시된 고용허가제<sup>17)</sup>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고용허가제는 법률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여 국내 체류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권한을 사업주에게 주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행사가 어려운 형편이어서 노동 3권은 사실상 제한되었다. 또한 노동자에게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여하지 않고 가족동반은 불허하며, 미등록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므로 산업연수 제도와 다름없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기본적인 노동권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적 권리 또한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다.<sup>18)</sup>

『나마스테』에서 “세상이 화안해요”라며 늘 밝게 웃던, 신우에게 “언제나 젖을 꺼내 물리고 싶은 어린아이 같았던” 카밀이 “세상이 캄캄해요”라면서 공동체의 전사로 변하게 된 계기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행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강제추방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 기왕에 불법체류를 해온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4년 이

- 16)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69쪽. 혈통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 개념을 신봉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정착하여 단일민족의 신화를 훼손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시민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인 국민국가라는 이주노동자의 권리 제약을 주권행사라는 취지에서 정당화한다. 설동훈, 「국제 노동력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전남 대학교 5·18연구소, 2007, 370쪽.
- 17) 2004년 8월 17일부터 생산 기능직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노동자의 고용기회 침식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국 인력을 수입하되,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업종별 단체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산업연수제도와 병행하는 형태로 실시 도입했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일원화하여 산업연수제는 폐지된다. 설동훈, 앞의 글, 40-43쪽.
- 18)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한울, 2007, 31쪽.

상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었다. 2003년 당시 4년 이상 된 사람은 외국인 노동자 40만 명중 20만 명이 넘었다.<sup>19)</sup> 불안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고향에 돌아가지 않으려는 혹은 돌아갈 수 없는 이주 노동자들은 법집행을 위한 강제 출국조치로 인해 두려움 속에 빠진다. 이윽고 강제 추방에 대한 불안과 고통을 못 이겨 스리랑카 사람 다르카, 방글라데시의 비쿠, 우즈베키스탄의 부르혼과 카임, 러시아 사람 안드레이, 중국동포 강태걸, 방글라데시인 자카리아, 중국동포 김원섭 씨 등 이주 노동자 8명이 연달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다.

동료들의 죽음을 목도하게 된 카밀은 “강제추방을 반대하고 연수제도 철폐 및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합류한다. 나아가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이주노동자 공동체는 물론 한국의 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자 한다. 그는 “타인의 삶에 헌신하고 싶은 불”을 가슴에 안고 비로소 농성을 통해 신념이 더욱 단단해지고 “생각하는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농성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는 결국 호텔 옥상으로 잠입해 올라가 ‘더이상 죽이지 마라’라고 쓴 현수막을 내려뜨려 놓고 산화한다. 시너를 뒤집어 쓴 몸에 불을 붙이고 시청 앞 광장을 향해 몸을 던진 것이다.

카밀의 산화는 바로 국가와 법 밖으로 내몰려 추방당하는 신체, 호모 사케르<sup>20)</sup>에 다름 아니다. ‘국민’이 원칙적으로 국가에 의해 시민권을 보장받고 인권이나 생존권도 국가와의 관계에서 규정된다는 근대 국민국가의 보호를 받는 자라고 한다면, 비국민인 카밀은 국민국가에 기초한 인권의 영

19) 박범신, 앞의 책, 240쪽.

20) 호모 사케르는 문명화된 세계에서 추방되어 자연상태로 내동댕이쳐진 존재이다. 호모 사케르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구속되고 보호받는 삶에서 아무런 보호도 구속도 없는 자연적 삶, 즉 ‘벌거숭이 삶’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벌거숭이 삶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관장하는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다. 법은 호모 사케르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극대화시킨다. 이 때문에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에서 배제되어 있지만 바로 그 사실을 통해 법질서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된다.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통치권력과 벌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제 67호, 문학과 지성사, 2004, 1286-1287쪽.

역<sup>21)</sup>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카밀을 비롯한 이주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은 국민국가라는 제도 속에서 이른바 신성불가침의 인권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에게 귀속된 권리로서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즉시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또 아무런 현실성도 없다<sup>22)</sup>는 것을 보여준다. 밀린 임금을 받으러 갔다가 새벽의 도심에서 112, 119로 수없이 구원을 요청했으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동사한 김원섭 씨가 죽은 날이 세계 인권의 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는 사실은 인권 개념의 보편성과 시민권 개념의 특수성 사이의 충돌을 잘 설명한다. 요컨대 카밀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는 법질서를 세우는 주권 권력의 문제를 묻는 맹목적 장소로서, 인간과 국민의 일치를 묻는 절대적 질문의 장소<sup>23)</sup>로 기능하는 것이다.

한편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 강제추방령은 근대 국가에서 법 폭력이 작동하는 고유의 방식을 잘 설명한다.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국민국가의 예외상황으로 만듦으로써 자국민의 안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주권권력은 바로 그 환상을 통해 지속 가능해진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국적의 문제로 환원하고 그들이 자기 조국 바깥에서 직면하는 위험을 강조하는 일은 결국 내부에 대한 환상을 강화하고 주권권력의 기만성을 은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sup>24)</sup> 결국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국민국가의 주권 개념에 내재한 이 같은 모순을 근본적으로 회피하고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민들을 창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21) 근대 초기 인권이라는 개념은 자연권에서 출발했지만 근대 국민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인권은 시민권으로만 존재하게 되었다. 즉 인간의 권리 속에서는 인간은 시민으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가능한 것이다. 최현, 『인권』, 책세상, 2008, 82-84쪽.

22)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245쪽.

23) 황호덕, 앞의 글, 432쪽.

24) 박진, 앞의 글, 234쪽.

### 3. 순혈주의와 성별화된 국적법

신우는 비록 사비나에 대한 사랑을 끝내 떨치지 못한 카밀이지만, 강한 카르마에 이끌려 그를 사랑하게 된다. 또 카밀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자 그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 것을 꿈꾼다. 그러던 중에 외국인 노동자와 사랑에 빠졌던 어떤 한국인 여자의 자살 사건 보도를 보게 된다. 그녀는 방직 공장에 다니다가 스리랑카 사람과 사랑에 빠졌고, 부모와 주위의 반대를 뿌리치고 곧 동거생활에 들어갔으며 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나 호적신고가 문제였다. 아이 아빠의 호적에 등재되는 순간 아이 또한 스리랑카 사람이 되므로 스리랑카로 보내야만 한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만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한 신우는 큰 충격을 받는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동안 카밀이 나와 결혼만 하면 카밀이 곧 한국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었다. 미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여 비교적 손쉽게 미국인 신분을 획득하는 남자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었다. 미국 땅에서 낳은 아이는 무조건 미국인으로 인정받는 속주주의 원칙도 우리나라엔 없다는 사실조차 그 무렵까지 나는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 기사는 내겐 많은 걸 가르쳤다. 속인주의라는 말을 처음 배웠고, 외국인과의 복잡한 결혼 절차도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일단 상대방이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 방문동거(F-1) 서류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만 알고도 한 숨이 나왔다.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비자였다. 게다가 그때로부터 2년 이상 혼인 상태로 함께 거주해야 할 뿐 아니라,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겨우 귀화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합법취업이 불가능한 방문동거 비자로 2년 이상 거주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3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긴 더욱 어려울 터였다. 일반귀화와 달리 혼인귀화로 얻는 혜택은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된다는 사실 정도였다.(180쪽)

신우는 카밀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결혼귀화뿐인데, 그나마 오랜 시간을 두고 험난한 제도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데 큰 절망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했고, 이 땅에서 함께 거주하고자 할 때 그 선택 또한 자유로울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와 사랑할 자유, 함께 거주할 자유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1990년대 초반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은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였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결혼으로 호적과 주민등록에 등재됨과 동시에 국가의 시민권자가 된다. 하지만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들은 시민권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체류 자격조차 인정받기 힘들 정도로 법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한국의 가부장제는 이주 여성을 남편에게 종속된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가부장인 이주남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이 출산한 자녀들은 출생지가 한국이고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국적 취득이 안 되는 외국인으로서 살아야 했다. 자녀들은 비국민으로서 단기체류 후 본국으로 귀환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된다. 카밀과 신우 사이에 태어난 애린(미야)이 아버지의 고향에 있는 카일라스를 향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한국인인가, 네팔인인가, 아니면 미국인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무적자로서의 본질적 소외를 느끼는 장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국제결혼 가정들의 탄원으로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었다. 그 결과 한국인 여성은 호주가 되고 자녀들이 호주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주 노동자 남편은 여전히 노동권의 보장은커녕 함께 거주할 권리조차 구조적으로 박탈당했다. 이주 노동자 남성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도 없는 F-1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귀화신청을 하는데도 인용문과 같이 까다로운 조건이 전제된다. 제도적 차별에 대한 꾸준한 저항으로 2000년 출입국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들은 F-2비자를 통해 노동권과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체류자격 부여는 성별 위계에서 한국 여성의 위치가 한국 남성보다 하위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주 노동자 출신의 외국인 남성은 외국인 여성보다도 하위에 있음을 뜻한다. 이는 국가가 이주 노동자 남성의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 노동자 남성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유지해 온 제도적 성차별이자 인종 차별적인 것이다.<sup>25)</sup>

25) 이상 국적법과 관련된 내용은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한울, 2007, 168-175쪽)을 참조함.

외국인 남성 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 또한 시민을 부모로 두고 출생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도 시민으로서의 아버지가 아니면 법적 차별을 받아야 했다. 혈통을 중시하는 속인주의에 기초한 국적법은 시민의 토대인 한에서만 인권이 부여되는 근대 국민국가의 폭력성을 다시 한 번 입증하는 것이다. 혈통에 입각한 국적법과 호적법은 어떤 인간이 시민인지 아닌지를 조정하고 제한하고자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카밀과 결혼하고자 하는 신우는 소위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국가간의 위계에서 제3국 출신의 남성을 택했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한다. 신우가 가진 아이의 아빠가 네팔 사람 카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작은 오빠는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지우라는 협박과 함께 신우를 모욕한다. 미국에 있을 때 엘에이 흑인폭동으로 아버지와 동생을 잃고 철저한 백인 우월주의 아래 인종차별을 경험했지만 그는 내면화된 가부장제와 순혈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처럼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 그것도 가난한 나라의 남성과의 결혼을 승인받는 일은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남성의 국제결혼은 민족의 순수성을 흐리기는 해도 어쨌든 국민의 수를 늘리는 생산적인 일인데 반해 여성의 그것은 남의 나라 국민을 늘려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부계주의적 혈통과 사고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 출신의 백인 남성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에서 돈 벌러 온 이주 노동자와 결혼하는 행위가 거의 민족에 대한 배신<sup>26)</sup>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철저한 순혈주의와 인종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제의 젠더화된 국적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초점을 두는 대상도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이다. 따라서 이주 남성 노동자는 결혼 이민자 가정에 초점을 맞추는 관주도형 다문화정책에서 범주적으로 배제<sup>27)</sup>될 뿐만

26) 박정애, 앞의 논문, 100쪽.

27) 결혼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다문화 정책 역시 가부장적 순혈주의에 근거한 동화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중심 범주를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으로 설정함으로써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을 주변화 한다. 한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은 가부장적이며 순혈주의적인 한국 사회 및 문화에 일방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제도에서도 배제되므로 이중으로 소외당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한 지 10여년이 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다문화 가족 정책에서 배제한 것은 철저히 국민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이주민 여성의 시민권만을 허용하려는 국민국가의 경계 짓기에 다름 아니다.

신우는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인 법 앞에서 제3세계 남성의 아내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는 법의 실체를 실감한 후,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내주면서까지 카밀과 그의 동료들이 벌이는 외국인 노동자 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 4. 상상된 공감과 소통의 시학

『나마스떼』는 신우와 카밀의 사랑 이야기를 기본 서사로 하면서 그들을 둘러싼 산업 연수제, 고용허가제, 국적법 등 법의 서사를 또 다른 중심축으로 전개하고 있다.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사실주의적으로 서술한 법이야기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자 근대 국민국가의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나마스떼』는 ‘희망로 7번지 가는 길’에서 카밀이 초점자로 기능하고, 에필로그인 ‘2021- 카일라스 가는 길’이 애린의 시점으로 서술될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신우가 초점자이자 서술자로 기능한다. 독자는 신우의 시·공간, 심리적, 관념적 수준에서 허구세계를 지각하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카밀이 주초점자인 ‘희망로 가는 길’에서도 그가 네팔에서 사비나를 찾아 한국에 오기까지의 과정과 공장에서 겪은 인권침해 그리고 법 적용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신우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어 독자 또한 신우와 같은 수화자의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 2007, 31쪽, 43쪽.

러한 서술방식은 독자에게 신우의 변화하는 내면을 따라 감정이입을 하도록 만드는 동일시의 효과를 낳는다.

세상은 차갑고 잔인하다고 믿으며 냉소적이던 신우는 카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히말라야에서 온 카밀은 “문명권의 사람들이 이미 상실하고 만 세계”를 견지하고 있는 본성이 순한 청년이다. 신우는 카밀에게 점점 운명적인 카르마를 느끼면서 모성과 같은 사랑을 키운다. 그녀가 카밀에게서 본 것은 아메리칸 드림을 좇아서 미국으로 갔다가 이상과 현실을 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녀는 엘에이 흑인폭동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총상으로 잃었다. 이후 미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10대를 보냈고, 자신을 단독자로 유폐시키고자 한 결혼에 실패하는 등 내내 무적자로서 본질적인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소수인종으로서 미국에서의 경험을 카밀의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의 체험과 병치시키면서 동질감을 느낀다. 나아가 그의 동료들을 만나면서 가난한 나라에서 온 노동자에 대한 멸시와 차별을 일삼는 민족과 국가에 대해 모멸감을 갖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 편의적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 그들이 강제로 쫓겨나게 되자 공분을 느낀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잘살자고 데려오고, 오게 만든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배고프지 않은 우리가 하기 싫은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구조와 착취의 시스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불러들인 후, 이제 구조개선을 명분삼아 그들을 무차별하게 내몰겠다는 뻔뻔하고 잔인한, 내 조국에 대해 그 순간 나는 너무도 화가 났다.(257쪽)

인용문은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실시된 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추방으로 공포에 휩싸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자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법제도의 폭력성을 비판하는 부분이다. 한편 그녀는 카밀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강제추방을 반대하는 농성에 합류한 카밀이 애린과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사발한 사실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폭압적인 인간사냥에 절망해 상처

받은 게 아니라, 카밀이 나를 버린 것 같아서 나는 상처받았다. 적어도 그 순간 카밀은 나를 버린 것이 확실했다. 그는 절망과 분노가 만들어준 신념 때문에 그곳에 있었지만 나는 사랑 때문에 그곳에 있었다. 카밀이 나를 버린다면 내겐 그 농성조차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었다.(321쪽)

신우는 카밀에 대한 사랑으로 그의 지향과 울분을 좇아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오로지 카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농성장에서 정작 삭발한 카밀을 보고 낯설음을 느끼면서 “사랑을 잃었다는 뼈저린 상실감”에 캄캄해진다. 신우는 농성하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가슴에 꽉 차 있는데도 그들 때문에 카밀을 빼앗겼고 자기 가족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랑과 가족을 지켜내고 싶은 그녀의 욕망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연민과 계속해서 충돌한다.

생각하면 십여 명이 함께 생활할 때에도 안방에 누굴 데려와 재울 생각을 안한 것은 사실이었다. 안방은 애린과 카밀, 우리 가족의 방이었으니까. 가족……이라고 나는 중얼거렸다. 나의 한계가 바로 거기 있었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사비나와 펠르와 텐징과 로리와 구룽을 낮춰 보지는 않았으나 그들과 함께 살 때조차, 세상은 물론 그들로부터도 나의 가족들을 지키고자 하는 본능에 따라 움직였던 것이다. 안방은 그런 면에서 나의 마지노선과 같았다. 그곳은 최소한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의 공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좁은 방에서 사람들이 칼날처럼 옆으로 몸을 세워 잠잘 때에도 안방으로 누굴 들일 생각 같은 건 전혀 해보지 않았었고, 가족 이기주의에 빠진 그때의 나로선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290쪽)

그녀는 농성 중에 아픈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기꺼이 자원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안방까지는 내어 줄 수는 없었다. “은연중에 자신이 한국 사람이고 집주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따로 자아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는지도 모른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신우의 내면을 따라가다 보면 민족주의와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타인종, 타민족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정서적으로 연대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들과의 사이에 있는 “민족의 강, 우열의 강, 피부색의 강”을 건너는 것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밀이 가족이기 이전에 추방당할 위기에 놓인 다른 민족이라고 느끼면서 “가족과 국가가 서로 배타적

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신우가 끊임없이 회의하는 장면은 민족국가가 가족주의에 기반한 정치형태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만들고, 자국의 민족만을 보호하는 법 제도의 벽을 실감케 한다. 이는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전 지구적 노동조건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신우가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과 이주노동자로 표상되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모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일인칭 서술자이자 초점자인 신우의 내면을 바라보는 독자로서 하여금 궁극적으로 타인과 나를 동일시하여 타인도 나와 같다는 믿음, 이른바 ‘상상된 공감’<sup>28)</sup>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감은 타인도 우리 자신과 다를 바 없이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타자와 우리의 내적인 감정들이 근본적으로 동질적임을, 한 인격체는 자율적이며 정당하게 분리되고, 분리된 상태 그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인권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유하는 것, 모든 타자가 평등하게 자기를 소유한다는 인식에 근거를 둔다.<sup>29)</sup> 이주 노동자로 표상되는 타자는 자율적이며 자유롭고 평등한,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이다. 『나마스테』는 바로 그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박탈하는 근대국가의 법질서를 비판하고, 그러한 불의에 대한 반감과 연대의 감정을 불러 일으켜 공감을 창출하고자 한다. 타자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고 인간에 대한 예의에 끊임없이 반문할 수 있는 감수성을 촉발하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상상된 공감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에 분명히 존재하되 존재감을 부여받지 못하는, 국민국가의 주권 외부에 벌거벗은 생명으로 존재한다. 언제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그들은 공적영역에서 자신의 경

28) 린 헛트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신문과 소설이 민족주의 번성에 필요한 ‘상상의 공동체’를 창조했듯이, 소설이 내적 자아에 관한 새로운 감각을 낳음으로써 ‘상상된 공감’을 창출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공감은 찰나의 믿음, 타인이 자신과 같다는 상상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상상되었다. 린 헛트 지음, 전진성 옮김, 앞의 책, 35쪽.

29) 린 헛트 지음, 전진성 옮김, 앞의 책, 69쪽.

힘과 관점을 재현할 수 있는 권리와 담론자원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이 한국어로 제대로 구사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배타적인 인종주의로 인한 위계적인 언어관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밀린 월급을 달라는 비쿠의 정당한 요구는 “빨갱이, 불법체류자”라는 발길질로 묵살 당한다. 사비나가 여기 와서 처음 배운 말은 “이 년, 씨팔년”이다. “네팔 에도 해가 뜨냐, 니네 나라 여자들도 애를 낳냐?”, “만날 먹는 게 육이니까요 암마, 네팔놈 새끼, 공장에 가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처럼 일방적인 멸시와 욕설만 있을 뿐 이주 노동자들과의 대화와 타협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담론자원과 언어자원의 위계 속에서 소외된 채 침묵할 수밖에 없다.

타인에게 발언할 수 있는 능력은 인권이며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sup>30)</sup> 『나마스테』에서 카밀은 네팔, 티베트의 신화와 종교에 관련된 용어를 포함한 네팔어를 계속해서 들려준다. 이 작품의 표제이기도 한 ‘나마스테’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오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다시 만나요 등의 광범위한 뜻을 지닌 네팔말로, 만남의 의미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소통의 시작”을 의미한다. “네팔 혹은 티베트 현지어를 그대로 한국 소설 본문에 도입한 것은 한국어와 맞서서 자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설정으로 언어 간의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sup>31)</sup>이라는 지적처럼 이 작품은 다양한 네팔어를 인용함으로써 언어의 위계구조를 무화시키고 소통의 장에 타자의 자리를 마련한다. 신우가 추모제단에서 중국동포 강태걸의 영정을 보면서 예전에 카밀이 한 말을 떠올리는 장면은 타자와의 소통이 언어(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

나마스테. 당신은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온 듯 곧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두 손 합장해 머리 위까지 올렸다가 고요히 앞가슴으로 내리며 인사했다. 세상에 서 본 가장 공손한 인사법이였다. 얼마나 고요하고 공손했으면 그 말의 뜻도 모르

30) 장 푸랑수아 리오타르, 엄순영·정태욱 역, 「타자의 권리」, 『현대사상과 인권-옥스퍼드 엠네스티 강의』, 사람생각, 2000, 179쪽.

31) 우한용, 앞의 글, 23쪽.

면서 ‘나마스테……’ 나도 따라 인사했겠는가. 나마스테는 참다운 약속 같은 인사말이었다. 당신은 내게 그날 히말라야가 ‘눈의 보금자리’라는 환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고, ‘옴 마니 밧 메훴’이란 티베트 불교의 주문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그 무엇을 가르쳐주었더라도, 그가 앞서 했던 말, ‘세상이 화안해 요’와 ‘나마스테’ 속에 포함된다는 걸 그 때는 알지 못했다. 어찌 네팔말뿐이겠는가. 소통을 위한 세계의 모든 언어가 다 그 두 문장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305-306쪽)

상상된 공감은 밑줄 친 부분처럼 소통의 언어에서 비롯된다. 타자가 나와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나마스테』의 문학적 상상력은 나아가 기능적이고 제한적인 범질서 속으로 스며들어 법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마스테』는 네팔의 신화 및 티베트 불교와 관련된 언어를 통해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기계가 아닌 역사와 문화를 몸으로 실어 나르는 주체임을 강조한다. 작품의 마지막에서 애린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향하는 카일라스는 “지구의 중심이자 티베트의 영혼, 삶과 죽음의 경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층하도 없고 문명과 반문명의 간격도 없고 욕망에 따른 온갖 번뇌, 망상과 원죄가 다 씻겨져 마침내 다르마타의 눈부신 눈빛과 같은 순정한 본성만 떠오르는” 곳이다. 작가는 “모귀, 갈망과 염원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끈질기게 상주불멸의 카일라스를 품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종교와 신화적 상상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봉합하는 낭만성을 노출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민족주의와 혈연주의에 기초한 법의 서사가 지닌 한계를 초월하여 의사소통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가져야 할 다문화적 감수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이상으로 박범신의 『나마스테』에 재현된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법의 서사와 문학적 서사와의 충돌 양상을 밝히고, 작품에서 문학적 상상력이 법을 넘어서 제기하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나마스테』는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남성과 한국인 여성

과의 혼인과 국적법에 관한 법의 서사를 사실주의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인권유린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법제도와 법적용의 현실 그리고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시작된 불법체류 단속과 강제 추방에 놓여있던 이주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근대 국민국가와 인권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국민국가 속에서 인권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에게 귀속된 권리로서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즉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카밀과의 결혼을 꿈꾸는 신우는 제3국 출신의 남성을 택했다는 이유로 주위로부터 경멸의 시선을 받는다. 남성의 국제결혼이 민족의 순수성을 흐리기는 해도 국민의 재생산에 기여하는 데 비해 한국 여성의 가난한 나라의 외국 남성과의 결혼은 민족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2000년에 국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한국 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 남성들은 속인주의에 바탕을 둔 법 제도 아래 시민권자가 될 수 없음은 물론 그 체류 자격조차 인정받기 힘들었다. 또 결혼과 동시에 시민권을 획득했던 결혼 이주여성에 비해 그들에게 법은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다. 여기서 철저한 순혈주의에 입각한 가부장제의 젠더화된 국적법의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나마스테』에 재현된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이러한 법질서를 세우는 근대 국민국가의 주권권력의 문제를 묻는 장소이자, 인간과 국민의 일치를 묻는 장소로 기능한다. 이들은 인간과 시민, 출생과 국적간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깨뜨리면서 근대 주권의 허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나마스테』는 이러한 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초점자이자 서술자인 신우에 대한 동일시 효과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상상된 공감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타인도 나와 같다는 믿음을 통해 이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박탈하는 근대국가의 법질서를 비판하고, 불의에 대한 반감과 연대의 감정을 촉발하여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창출한다. 나아가 작가는 이러한 공감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카밀을 통해 네팔과 티베트의 신화, 종교에 관련된 용어를 포함한 네팔어를 다양하게 들려줌으로써 언어자원의 위계를 무화시키고 대화와 소통의 장에 타자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소통의 언어를 서술하는 『나마스테』의 문학적 상상력은 혈연주의와 민족주의에 기초한 법질서 속으로 들어가 법

체계를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공선옥, 「명랑한 밤길」, 『창작과 비평』, 2005, 가을호(통권 129호).  
 김재영, 「코끼리」, 『창작과 비평』, 2004, 가을호(통권 125호).  
 김재영, 「아홉개의 푸른 쓰나」, 『내일을 여는 작가』, 2005, 겨울호(통권 41호).  
 박범신, 『나마스테』, 한겨레 출판, 2005.  
 손흥규, 「이무기 사냥꾼」, 『문학동네』, 2005 여름호(통권 43호).  
 이해경, 「물 한모금」, 『문학과 사회』, 2003 봄호(통권 61호).

### 2. 논문과 단행본

- 김태환, 「예외성의 철학-조르조 아감벤의 『호모사케르: 통치권력과 벌거숭이 삶』」, 『문학과 사회』 제 67호, 문학과 지성사, 2004, 1281-1297쪽.  
 김혜진, 「인권과 탈근대적 시민권 담론 -국내 이주 노동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2008.  
 린 헌트, 전진성 옮김,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박정애,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다문화가족’의 성별적 재현 양상 연구」, 『여성문학 연구』2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93-121쪽.  
 박 진, 「박범신 장편소설 『나마스테』에 나타난 이주노동자의 재현 이미지와 국민국가의 문제」, 『현대문학이론연구』40권,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23-239쪽.  
 설동훈,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제5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5, 39-77쪽.  
 설동훈, 「국제노동력이동과 외국인 노동자의 시민권에 관한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2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7, 369-419쪽.  
 오경석, 「어떤 다문화주의인가」,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현실과 쟁점』, 한울, 2007.  
 오윤호, 「외국인 이주자의 형상화와 우리 안의 타자담론」, 『현대문학이론연구』4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241-262쪽.  
 오윤호, 「디아스포라 플롯-2000년대 소설에 형상화된 다문화사회의 외국인 이주자」, 『시학과 언어학』17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9, 231-249쪽.  
 우한용, 「21세기 한국사회의 다양성과 소설적 전망」, 『현대소설연구』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7-35쪽.  
 이선옥,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형성과 성격 변화-고용허가제 도입 시기 명동성당 농성단 사례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논문, 2005.

- 이수자, 「이주여성 디아스포라 - 국제성별분업, 문화혼성성, 타자화와 섹슈얼리티」, 『한국사회학』 제38집 2호, 한국사회학회, 2004, 189-220쪽.
- 장 푸랑수아 리오타르, 엄순영·정태욱 역, 「타자의 권리」, 『현대사상과 인권-옥스퍼드 앤네스티 강의』, 사람생각, 2000.
- 정혜경, 「2000년대 가족서사에 나타난 다문화주의의 딜레마」, 『현대소설연구』 4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37-61쪽.
-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들의 이야기」,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한울, 2007.
-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 최경도, 「법과 문학: 정의의 문제」, 『새한영어영문학』, 제48권 1호, 2006, 83-97쪽.
- 최경도, 「헤라클레스의 활, 법과 문학의 서사전략」, 『새한영어영문학』, 제51권 3호, 2009, 181-197쪽.
- 최 현, 『인권』, 책세상, 2008.
-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문학동네』, 2006 겨울호, 418-434쪽.
- Jerome Seymour Bruner 지음, 강현석·김경수 옮김, 『이야기 만들기』, 교육 과학사, 2010.
- Slaughter, Joseph R, *Human Rights, Inc; the world novel, narrative form and international law*,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2007.

## Abstract

## Imagined Sympathy, Poetry of Communication

-Centered on the human rights and legal matter appeared on *Namaste*-

Eom, Mi-Ok

*Namaste* is the work that treats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legal matter for the marriage between migrant worker and Korean lady and the nationality act in the realism.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onflict aspect between legal narration and literary narration and looked into the possibility raised by the literary imagination beyond the law

The continuous deaths of the migrant works, who are under the illegal stay restriction and the compulsory deportation and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ecuted, show that the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state belongs to the citizens of specific nation. Meanwhile, the nationality act, which the gender is discriminated in the patriarchy that the marriage between foreign male and Korean female is exclusive and based on the pure-blood principle, is not being from the one lining the territory of the national state. Namely, the migrant workers, who exist being bared lives, all the rights being deprived, disclose the fiction of the modern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as the place asking back the continuity between human and citizen, and between birth and nationality. *Namaste*, in order to overcome the legal limit of such law, lets the readers form the imaged sympat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effect for the reliable friend. It creates the sensitivity for the human rights by stirring the hostility against the injustice and the feeling of solidarity. Furthermore, the writ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o form the sympathy. It makes the grade of rank for the linguistic resources void and attracts the batter into the communication place by letting us hear various Nepali languages including the Tibetan myth and the terms related to the religion through the ignition of Camil. The literary imagination of *Namaste*, which describes such languages of communication, can enter in the legal order, which based on the jus sanguinis and the nationalism and give the effect to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Namaste* is the work that treats the industrial training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legal matter for the marriage between migrant worker and Korean lady and the nationality

act in the realism. This study has clarified the conflict aspect between legal narration and literary narration and looked into the possibility raised by the literary imagination beyond the law

The continuous deaths of the migrant works, who are under the illegal stay restriction and the compulsory deportation and the situation of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befo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is executed, show that the human rights in the national state belongs to the citizens of specific nation. Meanwhile, the nationality act, which the gender is discriminated in the patriarchy that the marriage between foreign male and Korean female is exclusive and based on the pure-blood principle, is not being from the one lining the territory of the national state. Namely, the migrant workers, who exist being bared lives, all the rights being deprived, disclose the fiction of the modern sovereign right to establish the legal order as the place asking back the continuity between human and citizen, and between birth and nationality. *Namaste*, in order to overcome the legal limit of such law, lets the readers form the imaged sympathy through the identification effect for the reliable friend. It creates the sensitivity for the human rights by stirring the hostility against the injustice and the feeling of solidarity. Furthermore, the writer stresses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on to form the sympathy. It makes the grade of rank for the linguistic resources void and attracts the batter into the communication place by letting us hear various Nepali languages including the Tibetan myth and the terms related to the religion through the ignition of Camil. The literary imagination of *Namaste*, which describes such languages of communication, can enter in the legal order, which based on the jus sanguinis and the nationalism and give the effect to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Key words : Legal Narrative, Literary Imagination, Migrant worker, Human Rights, Citizenship, National State, Modern Sovereign Right, Homo Sacer, Sympathy, Communication)

위 논문은 2010년 10월 23일 제35차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자유주제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2010년 10월 30일 학술지에 정식 투고되어 심사를 거쳐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